

나르시시즘과 성별에 따른 성폭력 인식의 차이

배기동¹⁾ 허유진¹⁾ 이준배^{1),2)} 박수연¹⁾ 박선웅^{1)†}

¹⁾고려대학교

²⁾가톨릭관동대학교

본 연구는 나르시시즘과 성별이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대학생 13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여자들은 데이트 상황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시나리오 중 하나를 읽고, 성폭력 인식과 관련된 5개의 문항(여성 거절의 진심, 여성의 불쾌감, 여성의 성적 만족, 남성 행동의 폭력성, 남성 행동의 남성성)에 답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서 참여자 성별과 성관계 여부 간, 그리고 나르시시즘과 성관계 여부 간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나르시시즘이 낮은 사람에 비해 높은 사람이 성폭력에 대해 더 관대하였다. 본 연구는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데이트 성폭력 상황을 사용하여 성별이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고, 더 중요하게는 나르시시즘이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성차, 나르시시즘, 성폭력 인식, 데이트 성폭력

† 교신저자: 박선웅,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부교수,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2868, E-mail: sunwpark@korea.ac.kr

 Copyright © 2023,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등 법률상에서 규정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성적 언어나 행동을 일방적으로 표출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도 포함한다(고선영 등, 2004; 박윤경, 안현의, 2021; 양동욱 등, 2012; 오봉욱, 2014; 조현빈, 2006; 홍정연, 2018; Basile et al., 2009, 2014). 대검찰청(2022)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성폭력 범죄의 발생 건수는 32,898건으로 2020년 대비 9.7%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에는 38.9% 증가하였다. 지난 10년 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과 2018년의 일시적 감소세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인다(대검찰청, 2022). 또한 여성가족부(2022)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동안 성폭력 피해를 1번 이상 경험하며 2019년 기준으로 평생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여성이 38.6%, 남성이 13.4%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와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2), 배우자,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 인식과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학문적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강차선 등, 2016; 박경, 2008; 이석재, 최상진, 2001), 법적, 제도적 접근뿐만 아니라 성폭력 상황 해석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박다원, 이인혜, 2015; 정오영, 장석진, 2021; 조성희 등, 2008; 홍연주, 이주영, 2019). 이러한 흐름에 더해 본 연구는 최근 증가추세인 친밀한 관계

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상황을 가정하여 관찰자의 성별과 나르시시즘이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폭력 인식과 관련된 기존 연구 변인들

성폭력 인식을 다룬 선행 연구들에서 강간통념은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강간과 강간 피해자, 그리고 강간범에 대한 편견 혹은 잘못된 믿음으로 정의되는(Burt, 1980) 강간통념은 실제 성폭력 가해와 강간 성향을 설명할 수 있는 예측 변인이다(이형직, 2007; Hinck & Thomas, 1999).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강간통념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수록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등 성폭력 가해 경험에 많으며 객관적인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덜 폭력적으로 지각하고 강간통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였으며(이석재, 최상진, 2001), 성희롱이나 추행 등 언어적, 정서적 성폭력 가해 경험도 높게 나타났다(이형직, 2007).

성인지 감수성 역시 성폭력에 대한 인식 차이를 발생시키는 변인이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성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러한 차이가 야기하는 불평등을 인지하는 능력이다(김성현 등, 2019).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인지 감수성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가해 동기가 낮았으며(유재원, 2019) 성폭력 상황에 있어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를 덜 하였고 가해자의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여 형량을 더 높게 평가하는 등 가해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었다(김성현 등, 2019).

그러나 선행 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성역할 태도나 성폭력에 대한 개인의 평소 인식 등을 자기보고식 척도를 통해 측정하고 이들 척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등(김은경, 엄애선,

2010; 박갑제, 임성문, 2013; 박선미, 송원영, 2012; 임수진, 2012)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성폭력에 관한 인식을 탐색하지는 않았다. 또한 강간통념의 경우 주로 성폭력 발생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등과 같은 피해통념은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권인숙 등, 2016; 이석재, 최상진, 2001)과 강간이라는 특정한 성범죄 중심의 통념 위주 접근이라는 한계를 갖는다(김보화 등, 2017).

또한 성차별적 고정관념이나 강간에 대한 신념 등과 같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제를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여 낮은 응답률과 응답의 진실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있었던 성폭력 사건을 재구성하거나 가상의 시나리오를 활용한 연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김현승, 박지선, 2020; 윤병해, 고재홍, 2006) 강간, 강제추행 등 명백히 범죄로 규정된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기타 성폭력 범주를 포함하지 않았고 성폭력이 존재하지 않은 통제조건 시나리오 없이 성폭력이 포함된 한 가지 시나리오만을 제시하였기에(윤병해, 고재홍, 2006; 이석재, 최상진, 2001) 연구 결과로 나타난 성폭력 관련 인식이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인지, 성폭력과는 무관한 시나리오 속 남성과 여성의 일상적인 행동 패턴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선경 등(2015)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연구 방법론을 채택하여, 나르시시즘과 성별이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통해 성폭력 상황을 제시한 후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은

통제집단을 포함하고 성폭력이 발생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인식도 포함하였다.

성별과 성폭력 인식

성폭력 가해자 중 남성의 비율이 95.5%(대검찰청, 2022)라는 사실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성별은 성폭력 연구에 있어 꾸준히 언급되는 변인이다. 강간통념 역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혜리, 2007; Feild, 1978; Newcombe et al., 2008)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이 많으며(이은숙, 강희순, 2014) 성폭력 사건에 있어 여성보다 남성이 가해자와 자신을 더 많이 동일시하고(Kahn et al., 2011) 가해자의 책임은 낮게(김복태, 2001), 피해자의 책임은 높게 지각하였다(김현승, 박지선, 2020; 윤병해, 고재홍, 2006; Bieneck & Krahé, 2011; Pinciotti & Orcutt, 2021; Rollero & Tartaglia, 2019; Van der Bruggen & Grubb, 2014).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상대의 차를 얻어 탄 이후 또는 남녀 간 스킨십 등 애무 상황에 뒤이어 발생한 성폭력 상황에 대해 남성은 여성에 비해 피해자의 경솔함을 탓하였고 평소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성욕이 높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등 이전의 성경험 가능성에 주목하였으며 여성의 성관계 거절은 진심이 아닐 것이라고 지각하였다(이석재, 최상진, 2001). 또한 상대방이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농담 등과 같은 성희롱에 있어서도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김성미, 박미라, 2014).

이선경 등(2015)의 연구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 참여자들은 일상적인 데이트 끝에 성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시나리오

중 하나를 읽고 성폭력 인식에 관한 문항들(거절의 진심, 여성의 불쾌감, 여성의 성적 만족, 남성 행동의 폭력성, 남성 행동의 남성성)에 응답하였다. 그 결과 성별과 성관계 여부 간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관계가 있었던 조건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남성의 성관계 요구에 대한 여성의 거절은 진심이 아니며,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여성은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거절은 했지만 성관계를 했다면 비록 강제적으로 맺어졌더라도 여성의 성적 만족은 높았을 것이며, 상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진 남성의 행동에 대해서는 남성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성폭력 인식에 보다 관대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나르시시즘과 성폭력 인식

나르시시즘은 최근 성폭력 관련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변인이다. 나르시시즘은 스스로에 대한 과대평가, 과장된 우월감과 특권의식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성격 특성(Ackerman et al., 2011, 2016; Buffardi & Campbell, 2008)으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을수록 상대방을 성적으로 지배하려는 동기와 상대를 성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았다(박갑제, 임성문, 2013). 또한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상과 성관계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Baumeister et al., 2002) 성폭력 피해자에게 더 적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Bushman et al., 2003). 구체적으로, Bushman 등(2003)의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들은

영상 속 남성 또는 여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요청받은 다음 키스 등 남녀 간 합의된 애정행위로만 구성된 영상, 애정행위에 이어 남성이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강간하는 영상, 남성이 여성을 강간하는 장면으로만 구성된 영상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시청하고 폭력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영상의 종류, 나르시시즘, 동일시 여부 간 삼원상호작용이 존재하였다. 강간 장면이 포함된 두 가지 영상 중 하나를 시청하고 여성 주인공과 동일시하도록 요청받은 사람들은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폭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르시시즘이 낮은 사람들은 피해자인 여성 주인공에게 공감하여 폭력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나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은 여성 주인공에게 공감하지 않아 폭력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나아가 나르시시즘은 실제 성폭력 가해 행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다원, 이인혜, 2015; Widman & McNulty, 2010),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정오영, 장석진, 2021)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원선호, 배성만, 2020; Erdem & Sahin, 2017).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가 제시하는 두 번째 가설은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성폭력 인식에 있어서 더 관대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성인 모색기와 성폭력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이선경 등(2015)이 사용했던 방법을 차용하여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을 살펴보았다. 이선경 등(2015)의 연구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여정보다 남성이 성폭력 인식에 더 관

대했다. 둘째, 나이가 많을수록 성폭력 인식에 관대했다. 때문에 나르시시즘과 성별이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나이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특정 발달 단계에 있는 참여자, 구체적으로 성인 모색기(emerging adulthood)에 해당하는 참여자만을 모집하였다.

성인 모색기는 짧게는 18세에서 25세, 길게는 18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시기로, 생애 발달에 있어 청소년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성인기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부모에 대한 강한 의존성에서는 벗어나면서도 동시에 성인으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않은 채 다양한 삶의 방향을 탐색하는 경향이 있다(Arnett, 2000). 또 청소년기에 비해 사회적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압력을 덜 느끼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살고자 하며, 자기 중심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학업, 직업, 사랑, 인간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능성에 대한 모색을 통해 스스로에 대해 성찰하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기 때문에 변화와 불안을 경험하기도 한다(김은정, 2014).

정체성 탐색과 불안, 그리고 자기중심적 특성으로 인해 성인 모색기는 과속이나 음주운전, 약물 사용 등 여러 가지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시기로(Arnett, 2000; Piquero et al., 2002), 데이트 폭력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 역시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다(Rennison & Addington, 2014). 미국에서 국가 차원으로 진행한 친밀한 파트너 및 성폭력 실태 조사(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에 따르면 여성의 47.1%, 남성의 38.6%가 18~24세 사이에 데이트 폭력 피해를 처음 경험하였다(Black et al., 2016). 또

한 남자 대학생의 25.5%가 대학생 시절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경험이 있고(Kanin, 1967, 1969), 이는 대부분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발생하였으며 약 50%는 데이트 중에 일어났다(Koss et al., 1987). 성인 모색기와 관련된 이와 같은 양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마약 범죄 피의자의 34.8%, 성폭력 피의자의 32.5%가 20대이고 주로 성폭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도(여성가족부, 2022) 20대 피의자 비율(36.8%)이 가장 높으며, 전체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도 20대(32.5%)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대검찰청, 2022), 본 연구에서는 성인 모색기라는 특정 발달 단계에 있는 참여자들의 성폭력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나르시시즘과 성별이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데이트 후 강제적인 성관계가 발생 또는 발생하지 않은 조건에 무선택당되어 해당 시나리오를 읽고 성폭력 인식 측정에 사용된 5가지 문항에 응답하였다. 시나리오는 이선경 등(2015)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데이트 성폭력 관련 시나리오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성폭력 인식에 대한 성별(고혜리, 2007; 이선경 등, 2015; Bieneck & Krahé, 2011)과 나르시시즘(박다원, 이인혜, 2015; Bushman et al., 2003)의 영향을 확인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성별과 나르시시즘의 수준에 따라 성폭력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성별과 나르시시즘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기에(김세현 등, 2017; 한정민 등, 2016; Park & Colvin, 2015; Park et

al., 2013; Tanchotsrinon et al., 2007) 삼원상호작용은 예상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성폭력이 있었던 조건에서는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해 관대하게 인식하지만, 성폭력이 없었던 조건에서는 나르시시즘과 성폭력 인식 간 관련이 없을 것이다.

가설 2. 성폭력이 있었던 조건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폭력에 대해 더 관대하게 인식하지만, 성폭력이 없었던 조건에서는 성별에 따른 성폭력 인식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참여자는 국내 한 사립대학에서 통계 수업을 수강하는 133명의 학생들(남성 = 23명, 여성 = 110명)로 수업을 통해 본 연구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설문 링크를 제공받았다.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21.74세(표준편차 = 1.99)였으며, 나이의 범위는 19세에서 28세였다. 모든 실험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참여자들은 먼저 나르시시즘을 포함한 몇 가지 자기보고 척도에 응답하였고, 뒤이어 데이트 상황과 관련된 세 편의 시나리오를 보고 그와 관련된 질문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가 방법론을 차용하고 있는 이선경 등(2015)의 연구와 동일하게 연구

의 목적을 감추고자 세 편의 시나리오를 ‘사랑을 둘러싼 이성 간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주된 시나리오(성관계 여부가 조작된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전에 데이트 상황과 관련된 두 개의 시나리오를 모든 참여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즉, 참여자들은 총 세 개의 시나리오(허위 시나리오 2개 및 주된 시나리오 1개)를 읽은 후에 각 시나리오마다 할당된 문항들에 응답하였다. 설문이 끝난 후 참여자들은 본 연구의 실제 목적에 대해 안내받았고, 이후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가 성폭력 인식 및 예방에 대해 갖는 함의도 논의되었다.

실험적 조작

시나리오를 통한 성폭력 여부 조작

이선경 등(2015)이 사용했던 시나리오와 동일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이 시나리오는 연인관계에 있는 여성 A와 남성 B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묘사하고 있는데, 시나리오 전문은 아래에 제시하였다. 이 시나리오에서 성폭력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성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성폭력 사례에 해당한다(김한균, 2013; 한국성폭력상담소, 2013). 참여자들은 성관계가 발생한 조건과 발생하지 않은 조건에 무선으로 할당되었다.

여성 A와 남성 B는 연인 사이로, 데이트를 하기 위해 만났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어느덧 시간이 깊어 A와 B는 귀가하기로 했다. 이에 B는 A의 자취방 앞

까지 A를 데려다 주었다. 헤어지기 전에, A와 B는 잠시 차 한 잔을 마시기로 했고 두 사람은 A의 자취방으로 들어갔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신 뒤, B는 A에게 키스를 하고 애무했다. 그러나 잠시 후, A는 B를 손으로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말했다. B가 가까이 오려 하자 A는 손을 내저었으나, 결국 A와 B는 성관계를 가졌다(A는 손을 내저었고, 결국 A와 B는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측정 도구

나르시시즘

참여자들의 나르시시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나르시시즘 성격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Raskin & Terry, 1988)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를 통해 개인의 나르시시즘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 성격심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학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척도는 원래 4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별로 제시된 두 가지 진술문 중에서 자신을 더 잘 묘사하는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나르시시즘에 해당하는 문항만을 제시한 후 Likert 형태로 응답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entile 등(2013)이 13개로 문항을 줄인 단축형을 사용하였고, 한수정(1999)이 번안한 한국어 척도를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은 제시된 문항을 읽고 각 문항이 평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7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나에게서 쉬운 일이다.’와 ‘나는 내 몸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

한다.’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86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

시나리오를 읽은 뒤 참여자들은 성폭력 인식과 관련된 아래의 다섯 문항에 7점 척도로 응답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이 묻는 내용에 동의함을 의미한다. 추가로 이선경 등(2015)에서와 같이, (1)번, (2)번, (4)번 문항에 대한 응답을 역채점 한 후 평균 내어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 변인을 생성하였다.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 변인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75이었다.

- (1) 거절의 진심: “여성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얼마나 진심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2) 여성의 불쾌감: “남성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성은 불쾌감을 얼마나 느꼈다고 생각하십니까?”
- (3) 여성의 성적 만족: “성관계를 가진 (가지지 않은) 후 여성은 성적인 만족을 얼마나 느꼈다고 생각하십니까?”
- (4) 남성 행동의 폭력성: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가지지 않은) 남성의 행동은 얼마나 폭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5) 남성 행동의 남성성: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가지지 않은) 남성의 행동은 얼마나 남자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분석

나르시시즘과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 변인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정상분포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나르시시즘이 조건

별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조건별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이후 각 종속변인을 대상으로 삼원상호작용(성관계 여부 × 성별 × 나르시시즘) 및 두 개의 이원상호작용(성관계 여부 × 성별, 성관계 여부 × 나르시시즘) 분석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상호작용 및 단순효과 분석에는 jamovi 2.3.21을 활용하였다.

결 과

성관계 여부와 참여자 성별에 따른 기술통계값은 표 1에 제시되었다. 나르시시즘의 왜도는 0.45이었고, 첨도는 0.58이었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속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은 각각 1.60과 2.07 이하였다.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으므로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West et al., 1995). 성관계 여부를 독립변인으로, 나르시시즘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t*검

표 1. 성관계 여부 및 참여자 성별에 따른 종속변인 기술통계

| 종속변인 | 왜도 | 첨도 | 성관계 여부 | 평균(표준편차) | | |
|-------------|-------|-------|-----------|-------------------|--------------------|------------|
| | | | | 남(<i>n</i> = 23) | 여(<i>n</i> = 110) | 계 |
| 거절의 진심 | -1.60 | 2.07 | 유 | 3.50(1.31) | 6.05(1.39) | 5.74(1.61) |
| | | | 무 | 6.40(0.63) | 6.19(1.23) | 6.24(1.12) |
| | | | 계 | 5.39(1.67) | 6.12(1.31) | 5.99(1.40) |
| 여성의 불쾌감 | -0.85 | 0.61 | 유 | 4.00(1.51) | 5.68(1.45) | 5.48(1.55) |
| | | | 무 | 5.33(1.11) | 5.51(1.01) | 5.47(1.03) |
| | | | 계 | 4.87(1.39) | 5.60(1.26) | 5.47(1.31) |
| 여성의 성적 만족 | 0.39 | -0.41 | 유 | 4.13(0.64) | 2.23(1.24) | 2.46(1.34) |
| | | | 무 | 3.20(1.42) | 3.51(1.55) | 3.44(1.52) |
| | | | 계 | 3.52(1.27) | 2.85(1.53) | 2.96(1.51) |
| 남성 행동의 폭력성 | -0.31 | -1.17 | 유 | 4.38(1.19) | 6.12(1.15) | 5.91(1.28) |
| | | | 무 | 3.60(1.76) | 2.94(1.69) | 3.09(1.72) |
| | | | 계 | 3.87(1.60) | 4.59(2.14) | 4.47(2.07) |
| 남성 행동의 남성성 | 0.20 | -1.24 | 유 | 3.88(1.46) | 1.65(1.32) | 1.92(1.51) |
| | | | 무 | 4.80(1.52) | 4.87(1.49) | 4.85(1.49) |
| | | | 계 | 4.48(1.53) | 3.20(2.14) | 3.42(2.10) |
|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 | -0.17 | -1.07 | 유 | 4.03(0.71) | 2.00(1.15) | 2.25(1.29) |
| | | | 무 | 3.33(0.79) | 3.55(0.68) | 3.50(0.71) |
| | | | 계 | 3.57(0.82) | 2.75(1.23) | 2.89(1.21) |

정을 시행한 결과, 상관관계가 있었던 조건(평균 = 3.40, 표준편차 = 0.97)과 없었던 조건(평균 = 3.51, 표준편차 = 0.96)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31) = 0.66, p = 0.51, \text{Cohen's } d = 0.12$. 이러한 결과는 나르시시즘 수준이 두 조건에 균등하게 분포되었음을 의미한다. 나르시시즘과 종속변인 간의 단순상관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의 대각선을 중심으로 좌측 하단은 상관관계가 있었던 조건, 우측 상단은 상관관계가 없었던 조건에서의 상관 분석 결과이다. 상관관계가 있었던 조건의 경우, 나르시시즘과 모든 종속변인 간 상관관계는 유의했으나, 상관관계가 없었던 경우에는 오직 한 종속변인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르시시즘은 상관관계가 발생한 조건에서 거절의 진심($r = -.34$), 여성의 불쾌감($r = -.29$), 남성 행동의 폭력성($r = -.34$)과는 부적 상관이, 여성의 성적 만족($r = .34$), 남성 행동의 남성성($r = .43$),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r = .40$)과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상관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조건에서 나르

시시즘은 거절의 진심($r = -.25$)과의 상관만이 부적으로 유의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참여자의 성별과 나르시시즘이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인은 세 개이기 때문에 각 종속변인별(다섯 개의 문항 및 이를 평균 낸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로 총 여섯 번 삼원상호작용(성관계 여부 \times 성별 \times 나르시시즘) 분석을 시행하였다. 예상했던 것처럼, 삼원상호작용은 모든 경우에 유의하지 않았고, 다수의 유의한 이원상호작용이 나타났다. 따라서 성관계 여부 \times 성별, 그리고 성관계 여부 \times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원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성관계 비발생 조건은 0으로 성관계 발생 조건은 1로 코딩하였고, 여성은 0으로 남성은 1로 코딩하였으며, 나르시시즘 점수는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12회의 이원상호작용 분석을 시행한 결과 10개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이 상호작용을 자세히 살펴

표 2. 각 조건별 나르시시즘과 종속변인 사이의 상관관계

| | 1 | 2 | 3 | 4 | 5 | 6 | 7 |
|----------------|--------|---------|---------|---------|---------|--------|---------|
| 1. 나르시시즘 | - | -.25* | -.04 | -.06 | .23 | .00 | -.05 |
| 2. 거절의 진심 | -.34** | - | .43*** | .15 | -.01 | .20 | -.29* |
| 3. 여성의 불쾌감 | -.29* | .77*** | - | -.12 | .18 | -.12 | -.62*** |
| 4. 여성의 성적 만족 | .34** | -.81*** | -.73*** | - | .10 | -.00 | .37** |
| 5. 남성 행동의 폭력성 | -.34** | .77*** | .81*** | -.80*** | - | -.40** | -.66*** |
| 6. 남성 행동의 남성성 | .43*** | -.69*** | -.56*** | .74*** | -.64*** | - | .59*** |
| 7.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 | .40** | -.92*** | -.87*** | .92*** | -.90*** | .82*** | - |

주. 대각선의 우측 상단은 상관관계가 없었던 조건($n = 68$)에서의 상관계수이며, 대각선 좌측 하단은 상관관계가 있었던 조건($n = 65$)에서의 상관계수이다.

* $p < .05$. ** $p < .01$. *** $p < .001$.

표 3. 각 종속변인에 대한 주효과 및 이원상호작용

| 종속변인 | 성관계 여부 × 성별 | | | | 성관계 여부 × 나르시시즘 | | | |
|----------------|-------------|-------|-------|------------|----------------|--------|-------|------------|
| | 독립변인 | F | p | η_p^2 | 독립변인 | F | p | η_p^2 |
| 거절의 진심 | 성관계 여부 | 25.49 | <.001 | .17 | 성관계 여부 | 5.60 | .019 | .04 |
| | 성별 | 15.16 | <.001 | .11 | 나르시시즘 | 12.80 | <.001 | .09 |
| | 성관계 여부 × 성별 | 21.12 | <.001 | .14 | 성관계 여부 × 나르시시즘 | 1.23 | .270 | .01 |
| 여성의 불쾌감 | 성관계 여부 | 3.71 | .056 | .03 | 성관계 여부 | 0.01 | .921 | .00 |
| | 성별 | 9.56 | .002 | .07 | 나르시시즘 | 4.78 | .031 | .04 |
| | 성관계 여부 × 성별 | 6.28 | .013 | .05 | 성관계 여부 × 나르시시즘 | 3.21 | .076 | .02 |
| 여성의 성적 만족 | 성관계 여부 | 0.30 | .587 | .00 | 성관계 여부 | 15.38 | <.001 | .11 |
| | 성별 | 5.88 | .017 | .04 | 나르시시즘 | 2.06 | .154 | .02 |
| | 성관계 여부 × 성별 | 11.35 | <.001 | .08 | 성관계 여부 × 나르시시즘 | 4.84 | .030 | .04 |
| 남성 행동의 폭력성 | 성관계 여부 | 31.99 | <.001 | .20 | 성관계 여부 | 121.00 | <.001 | .49 |
| | 성별 | 2.44 | .121 | .02 | 나르시시즘 | 0.01 | .920 | .00 |
| | 성관계 여부 × 성별 | 11.83 | <.001 | .08 | 성관계 여부 × 나르시시즘 | 10.45 | .002 | .08 |
| 남성 행동의 남성성 | 성관계 여부 | 37.31 | <.001 | .22 | 성관계 여부 | 133.46 | <.001 | .51 |
| | 성별 | 10.12 | .002 | .07 | 나르시시즘 | 6.85 | .010 | .05 |
| | 성관계 여부 × 성별 | 11.43 | <.001 | .08 | 성관계 여부 × 나르시시즘 | 6.60 | .011 | .05 |
|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 | 성관계 여부 | 3.70 | .057 | .03 | 성관계 여부 | 51.44 | <.001 | .29 |
| | 성별 | 16.67 | <.001 | .11 | 나르시시즘 | 7.58 | .007 | .06 |
| | 성관계 여부 × 성별 | 25.49 | <.001 | .17 | 성관계 여부 × 나르시시즘 | 9.80 | .002 | .07 |

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단순효과 혹은 단순기울기를 분석하였다. 성관계 여부 × 나르시시즘의 상호작용 중 두 경우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성폭력 인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 두 경우에서도 단순기울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거절의 진심

시나리오에서 남성의 성관계 시도에 대한

여성의 거절이 얼마나 진심이었느냐는 문항의 경우, 성관계 여부 × 성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였고(표 3), 그에 따라 단순효과를 확인하였다. 표 1에서 나타나듯, 성관계가 발생한 경우 남성 참여자들(평균 = 3.50, 표준편차 = 1.31)과 비교해 여성 참여자들(평균 = 6.05, 표준편차 = 1.39)은 여성의 거절이 더 진심이라고 생각하였다, $F(1, 129) = 28.83, p < .001, \eta_p^2 = .18$. 성관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남녀 참여자들 간 여성의 거절이 얼마나 진심

이었는데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F(1, 129) = 0.33, p = .567, \eta_p^2 = .00$.

성관계 여부 \times 나르시시즘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지만(표 3), 성관계 여부에 따른 단순기울기를 분석하였다.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 나르시시즘은 거절의 진심을 부적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했지만, $b = -0.56, SE = 0.17, CI [-0.90, -0.22], \beta = -.39, p = .001$, 성관계가 없었던 경우 여성의 거절의 진심과 나르시시즘 사이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b = -0.30, SE = 0.17, CI [-0.63, 0.04], \beta = -.20, p = .081$. 즉, 데이트 후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발생했을 경우에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시나리오 속의 여성의 거절이 진심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성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나르시시즘에 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성의 불쾌감

남성의 성관계 시도 거절에 대한 여성의 불쾌감 반응에서, 성관계 여부 \times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표 3). 단순효과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는 성관계가 있었던 조건에서만 나타났다. 즉, 남성 참여자들(평균 = 4.00, 표준편차 = 1.51)보다 여성 참여자들(평균 = 5.68, 표준편차 = 1.45)이 성관계가 발생한 조건의 시나리오 속 여성이 더욱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F(1, 129) = 12.53, p < .001, \eta_p^2 = .09$. 성관계가 없었던 상황에서는 여성의 불쾌감에 대한 남녀 참여자들의 판단에는 차이가 없었다, $F(1, 129) = 0.23, p = .634, \eta_p^2 = .00$.

여성의 불쾌감에 대한 성관계 여부 \times 나르시시즘의 상호작용은 경계선상에서 유의하였

다(표 3).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관계가 있었던 상황에서는 나르시시즘과 여성의 불쾌감 사이의 단순기울기가 유의하여 이 조건에서 나르시시즘은 여성의 불쾌감을 부적적으로 예측하였지만, 즉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여성의 불쾌감을 낮게 판단하였지만, $b = -0.46, SE = 0.17, CI [-0.79, -0.14], \beta = -.34, p = .006$, 성관계가 없었던 상황에서는 유의하지 않아 나르시시즘이 여성의 불쾌감을 예측하지 않았다, $b = -0.05, SE = 0.16, CI [-0.37, 0.28], \beta = -.03, p = .779$.

여성의 성적 만족

성관계 여부에 따라 여성이 느꼈을 성적 만족감의 경우, 성관계 여부 \times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고(표 3), 이에 성관계 여부에 따른 성별의 단순효과를 확인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성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일단 성관계가 발생하면 여성 참여자들(평균 = 2.23, 표준편차 = 1.24)보다 남성 참여자들(평균 = 4.13, 표준편차 = 0.64)이 시나리오 속 여성의 성적 만족도는 높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F(1, 129) = 13.43, p < .001, \eta_p^2 = .09$.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1, 129) = 0.60, p = .442, \eta_p^2 = .01$.

성관계 여부 \times 나르시시즘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하였고(표 3), 성관계 여부에 따른 여성의 성적 만족감 평가와 나르시시즘 사이의 단순기울기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여성이 거절하였지만 성관계가 발생한 상황에서 나르시시즘이 높은 참여자들은 여성의 성적 만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b = 0.46, SE = 0.18, CI [0.10, 0.82], \beta = .30, p = .012$. 하지만 성

관계가 없었던 경우 두 변인 사이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b = -0.10$, $SE = 0.18$, $CI [-0.45, 0.26]$, $\beta = -.06$, $p = .586$.

남성 행동의 폭력성

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현한 후 성관계 여부에 따른 남성 행동의 폭력성에 대한 문항에서 성관계 여부 × 성별의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표 3). 성관계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남성(평균 = 4.38, 표준편차 = 1.19)보다 여성(평균 = 6.12, 표준편차 = 1.15) 참여자들이 남성의 행동을 더욱 폭력적이라고 생각하였고(표 1), $F(1, 129) = 10.00$, $p = .002$, $\eta_p^2 = .07$, 성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 129) = 2.35$, $p = .128$, $\eta_p^2 = .02$.

또한, 성관계 여부 × 나르시시즘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고(표 3) 단순기울기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성관계가 발생한 경우 참여자들의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억지로 성관계를 가졌던 남성의 행동이 폭력적이지 않다고 여겼다, $b = -0.45$, $SE = 0.19$, $CI [-0.82, -0.07]$, $\beta = -.21$, $p = .021$. 성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던 조건의 경우,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성관계를 하지 않은 남성의 행동이 더 폭력적이라고 인식하였다, $b = 0.42$, $SE = 0.19$, $CI [0.05, 0.79]$, $\beta = .19$, $p = .027$.

남성 행동의 남성성

여성이 성관계 거절 의사를 밝힌 후 성관계를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남성의 행동이 얼마나 남성적인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성관계 여부 × 성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였다(표

3). 단순효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관계가 발생하였던 상황에서 여성(평균 = 1.65, 표준편차 = 1.32)에 비해 남성(평균 = 3.88, 표준편차 = 1.46) 참여자들은 성관계를 가진 남성의 행동이 더 남성적이라고 판단하였다(표 1), $F(1, 129) = 17.22$, $p < .001$, $\eta_p^2 = .12$. 반면, 성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성 행동의 남성성과 성별의 단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129) = 0.03$, $p = .870$, $\eta_p^2 = .00$.

성관계 여부 × 나르시시즘의 상호작용도 유의하였고(표 3) 단순기울기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성관계가 발생하였던 조건에서는 남성 행동의 남성성과 나르시시즘 사이에 단순기울기는 유의하였다. 즉,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여성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진 남성의 행동이 더욱 남성적이라고 생각하였다, $b = 0.68$, $SE = 0.19$, $CI [0.31, 1.04]$, $\beta = .31$, $p < .001$. 하지만 성관계가 없었던 조건에서는 두 변인 사이에서의 단순기울기가 유의하지 않았다, $b = 0.01$, $SE = 0.18$, $CI [-0.36, 0.37]$, $\beta = .00$, $p = .973$.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

위에서 분석한 다섯 가지 종속변인을 평균내어 생성한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 변인에 대한 성관계 여부 × 성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였다(표 3).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관계 발생 조건에서 여성(평균 = 2.00, 표준편차 = 1.15)에 비해 남성(평균 = 4.03, 표준편차 = 0.71)이 성폭력에 대해 더욱 관대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F(1, 129) = 33.36$, $p < .001$, $\eta_p^2 = .21$. 성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에 대한 성별의 차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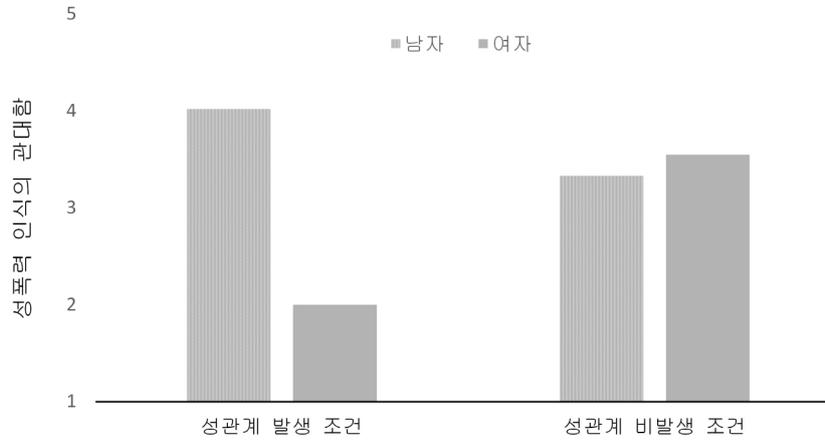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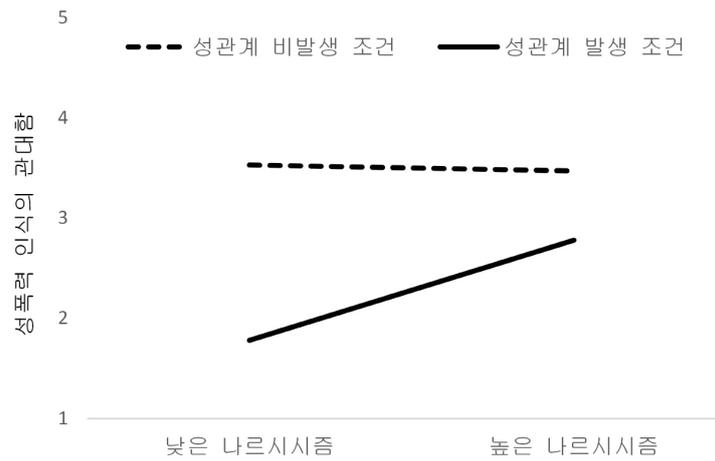


그림 1. 성관계 여부와 성별이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에 미치는 영향



주. 나르시시즘의 높고 낮음은 평균으로부터 1표준편차 위와 아래에서 설정되었다.

그림 2. 성관계 여부와 나르시시즘이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에 미치는 영향

유의하지 않았다, $F(1, 129) = 0.62, p = .432, \eta_p^2 = .01$.

성관계 여부 \times 나르시시즘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하였고(표 3) 단순기울기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성관계가 발생하였던 조건에서는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관대하였다, $b =$

$0.52, SE = 0.13, CI [0.27, 0.77], \beta = .42, p < .001$. 성관계가 없었던 조건에서는 두 변인 사이의 단순기울기는 유의하지 않았다, $b = -0.03, SE = 0.12, CI [-0.28, 0.21], \beta = -.03, p = .789$.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나르시시즘이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상적인 데이트 끝에 성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상황으로 구분되는 시나리오를 참여자들에게 제시하고 성폭력 인식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다수의 문항들에서 성별과 성관계 여부 간, 나르시시즘과 성관계 여부 간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예상했던 바와 같이 성별과 나르시시즘, 그리고 성관계 여부 간의 삼원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관계가 있었던 조건에서 남성 참여자들은 여성 참여자들에 비해 시나리오 속 여성의 거절은 진심이 아니며, 남성의 요구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성관계 후 여성이 느끼는 성적 만족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여성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진 남성의 행동에 대한 폭력성은 낮게 평가함과 동시에 남성적인 행동으로 인식하였다. 또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시나리오 속 여성이 남성의 성적 요구를 거절할 당시 경험했을 불쾌감은 낮게, 성관계 후 성적 만족은 높게 판단하였으며 여성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진 남성의 행동에 대하여 폭력적이지 않고 남성적인 행위로 인식하였다. 성관계가 일어나지 않았던 조건에서는 성별과 나르시시즘은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상대의 거절 의사 표시로 인해 성관계를 하지 않은 남성의 행동을 오히려 더 폭력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에 비해서는 남성이, 나르시시즘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는 높은

사람이 성폭력에 대해 더 관대하게 인식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폭력 관련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영향을 구분하고 성격 특성으로서 나르시시즘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했듯, 선행 연구에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해자 책임은 낮게, 피해자 책임은 높게 지각하고, 성폭력 인식 등에 있어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관대한 태도를 보였으며(김복태, 2001; 김현승, 박지선, 2020; 윤병해, 고재홍, 2006; Bieneck & Krahé, 2011; Pinciotti & Orcutt, 2021; Rollero & Tartaglia, 2019; Van der Bruggen & Grubb, 2014),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정오영, 장석진, 2021) 가해자의 폭력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였다(Bushman et al., 2003). 기존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향후 성폭력 관련 연구에서 성별과 나르시시즘을 주요 변인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 범죄 중 최근 증가추세인 데이트 성폭력 상황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작성하되 성폭력이 발생한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발생하지 않았던 통제 시나리오를 연구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 인식의 차이가 대부분 성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확인한 성별과 나르시시즘이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성폭력과 관련 없이 묘사된 남녀의 일상적인 행동 패턴에 대한 판단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폭력 상황에 대한 판단 차이에서 기인한 것임을 보여준다.

한편 성별 × 나르시시즘 × 성관계 여부 간

의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관계가 없었던 조건에서는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성별과 나르시시즘의 영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삼원상호작용의 부재는 성관계가 있었던 조건에서 성별과 나르시시즘 사이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나르시시즘이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러한 결과는 나르시시즘이 높은 여성의 경우 나르시시즘이 높은 남성과 비슷한 방식으로 성폭력을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별과 나르시시즘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던 기존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김세현 등, 2017, 2022; 한정민 등, 2016; Park & Colvin, 2015; Park et al., 2013; Tanchotsrinon et al., 2007).

본 연구의 중요한 한계점 중 하나는 심리학 전공 수업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두 가지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심리학 전공자의 성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실험에 참여한 남성의 수가 충분히 크지 않고 여성에 비해 적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 인식에서 나타난 성별의 차이를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인식에 대한 성별 차이를 확인한 선행 연구들(김성미, 박미라, 2014; 이석재, 최상진, 2001)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며, 특히 본 연구가 반복재현하고자 했던 이선경 등(2015)의 결과와 일치함을 볼 때, 남성 참여자 수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심리학과에서 성차, 고정관념, 성폭력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이 일반적인 성인 모색기 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즉 심리학

교육 특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성폭력에 대해 더 민감하고 덜 관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일반적인 성인 모색기 집단에서의 성폭력 인식에서는 나르시시즘과 성별의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성인 모색기 집단을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표본을 모집하여 본 연구 결과를 반복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가 남성을 가해자로, 여성을 피해자로 전제하고 있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똑같은 데이트 폭력 범죄라고 할지라도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일 때 사람들이 사건에 대해 더 부정적이고 심각하게 인지한다는 기존 연구(Hamby & Jackson, 2010)를 고려했을 때, 여성이 가해자인 시나리오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데이트 폭력 남성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남성 피해자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에(Dixon et al., 2022; Smith et al., 2018), 남성이 피해자로 제시된 시나리오에서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여성이 가해자이고 남성이 피해자인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하여 나르시시즘과 참여자의 성별, 그리고 성관계 여부 간의 관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평가와 책임 판단 등에는 상황 속 개인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각 개인과 관련된 여러 정보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있어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별이나 음주량, 옷차림, 도발 유무 등은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준다(양동옥 등, 2012; 이지혜 등, 2014). 향후 시나리오 속 주인공들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하여 관찰자의 성별과 나르시시즘이 상황 속 가해자 및 피해자의 정서와 행위 판단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성폭력 인식에 관한 전체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 먼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그리고 교육 장면에서 있어서 함의를 가진다. 동일한 상황에 대해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상대가 맥락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른 성폭력 관련 인식은 성행위를 거절하는 장면에서부터 성행위가 발생한 이후 전개되는 상황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그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하여 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성폭력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시야를 확장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심리적, 정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공감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공감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족한 것이고(박갑제, 임성문, 2013; Hepper et al., 2014), 동기의 부족은 스스로에 대한 과장된 우월감, 특권의식 등 나르시시즘 특성에 기인한 결과이자 자아상 유지에 위협으로 인식될 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공감은 위협 요소가 아니라 ‘능력’이고 사회적 맥락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다음으로 생애 발달과 연계하여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는 방향을 알려준다. 성인 모색기는 그 특성상 이전 시기에 비해 사회적 규범 준수로부터의 압력이 약화되어 심리적으로 자유로운 동시에 성관계를 포함한 육체적, 정서적 사랑에 대한 탐구가 활발해지는 시기이다(Arnett, 2000). 이때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범죄 발생률을 증가시키고 누군가를 피해자로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는데, 과거 성폭력 피해 경험은 이후 성폭력 피해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선행연구(Wood et al., 2023)를 고려해 볼 때 이 시기에 대한 성폭력 문제 이해와 예방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사회 내 양성평등 교육의 방향성 설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 2021-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불평등지수(순위가 높을수록 성평등을 의미)는 189개국 중 15위로 성불평등 정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되지만(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22)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남성 중심의 가치관과 문화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남녀 관계에서 성별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과 힘의 불균형이 개인의 사회 정체성(social identity)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김금미, 안상수, 2008) 이것이 성폭력 인식에서 성별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인생 초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곳들은 물론 각 가정에서도 구성원들의 양성평등 가치관 내면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인 나르시시즘이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인들에게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선경 등, 2014). 본 연구에서 드러났듯, 나르시시즘은 성별에 상관없이 더 관대한 성폭력 인식과 이어지기 때문이다. 성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중 하나가 공감 능력이고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도 타인에게 공감해보라는 연구자의 명시적인 지시가 있을 때는 타인의 관점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음을 볼 때(Hepper et al., 2014), 양성평등 교육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험할 생각과 정서에 대한 민감성 향상과 같은 공감 교육을 보다 구체화하여 반영 및 강화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차선, 정민, 염순정, 박정환 (2016). 대학생의 성폭력 인식도가 성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지, 17(12), 551-560.
doi:10.5762/KAIS.2016.17.12.551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2). 치안전망 2023.
https://psi.police.ac.kr/police/board/view.do?bbsId=BBSMSTR_000000000156&pageIndex=1&ntId=158871&menuNo=115006000000에서 2023. 1. 20. 자료 얻음.

고선영, 양종희, 이수정 (2004). 성폭력 범죄의 원인과 개입전략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117-146.

고혜리 (2007). 남녀 대학생의 성폭행 사건 지각 차이에 대한 분석: 성역할 고정관념과

강간통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권인숙, 이건설, 김선영 (2016).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통념의 2차 피해적 영향 연구. 젠더와 문화, 9(2), 49-84.
doi: 10.20992/gc.2016.12.9.2.49

김금미, 안상수 (2008). 남성의 성평등 의식 예언을 위한 모형통합: 사회정체성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33-155.
doi: 10.21193/kjspp.2008.22.4.009

김보화, 추지현, 이미경 (2017).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따른 피해자의 성폭력 통념 경험. 피해자학연구, 25(2), 89-121.
doi: 10.36220/kjv.2017.25.2.89

김복태 (2001).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공감능력 및 성폭력 사건 지각의 차이.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성미, 박미라 (2014). 남녀고등학생의 성폭력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지, 15(2), 970-978.
doi: 10.5762/KAIS.2014.15.2.970

김성현, 임광현, 성현준, 성나경, 김성희, 김광수, 이수정 (2019). 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이 위력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 18(4), 3-36.
doi: 10.38084/2019.18.4.1

김세현, 한정윤, 허태균 (2022).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외도 의도: 관계 내 파위의 양면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6(3), 165-185. doi: 10.21193/kjspp.2022.36.3.001

김세현, 허용희, 박선웅 (2017). 나르시시즘과 낭만적 관계에서의 외도 의도: 개인 × 상황 상호작용적인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2), 1-20.

- doi: 10.21193/kjspp.2017.31.2.001
김은경, 엄애선 (2010).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데이트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759-777.
doi: 10.18205/kpa.2010.15.4.011
- 김은정 (2014). 20 대 청년층의 새로운 생애 발달단계로서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에 관한 탐색 연구. 담론 201, 17(3), 83-129.
- 김한균 (2013). 개정형법상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 해석·입법론. 형사법연구, 25(3), 81-103.
- 김현승, 박지선 (2020). 성별과 가해자 연령이 아동 성폭력 사건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11(3), 287-307.
doi: 10.53302/kjfp.2020.11.11.3.287
- 대검찰청 (2022). 2022 범죄분석.
<https://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n>에서 2023. 1. 20. 자료 얻음.
- 박갑제, 임성문 (2013).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 경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1), 45-68.
- 박경 (2008).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간의 관계: 공감 및 강간통념의 중재 및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519-536.
- 박다원, 이인혜 (2015). 자기애와 성폭력 가해행동의 관계: 특권분노/허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공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377-394.
- 박선미, 송원영 (2012).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성 관련 경험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2), 265-280.
doi: 10.18205/kpa.2012.17.2.010
- 박윤경, 안현의 (2021). 성폭력 피해에 대한 조직배반과 우울의 관계: 외상 후 인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1), 19-34.
doi: 10.20406/kjcs.2021.2.27.1.19
- 양동욱, 국혜윤, 백현경, 윤가현 (2012). 참가자의 성별, 피해 여성의 옷차림 종류와 음주량 수준에 따른 성폭력 책임 귀인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323-345.
- 여성가족부 (2022). 2022년 여성폭력통계.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bbtSn=704377에서 2022. 12. 29. 자료 얻음.
- 오봉욱 (2014). 교정시설 수용자간의 성범죄 예방 및 교정복지적 방안: 동성에 의한 성범죄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34, 109-131.
- 원선호, 배성만 (2020).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분노의 매개역할과 인지적 공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3), 549-567.
doi: 10.17315/kjhp.2020.25.3.006
- 유재원 (2019). 대학생의 젠더감수성과 데이트폭력 가해동기의 관계에서 스포츠 참여의 조절효과.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병해, 고재홍 (2006).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이: 강간통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1-19.
- 이석재, 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력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97-116.
- 이선경, 팔로마 베나비데스, 허용희, 박선웅

- (2014).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증가: 시교차적 메타분석(1999-2014).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3), 609-625.
- 이선경, 허용희, 박선웅 (2015). 성별과 나이에 따른 성폭력 인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1), 65-81.
doi.: 10.21193/kjspp.2015.29.1.004
- 이은숙, 강희순 (2014).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성, 성폭력 인식도, 성폭력 허용도 및 데이트 성폭력 경험. *동서간호학연구지*, 20(1), 48-56.
doi: 10.14370/jewnr.2014.20.1.48
- 이지혜, 박우현, 이수정 (2014). 성폭력사건의 피해자 요인이 배심원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25-40.
- 이형직 (2007).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강간통념 수용의 매개효과와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수진 (2012).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성폭력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347-361. doi: 10.18205/kpa.2012.17.3.003
- 정오영, 장석진 (2021). 미혼 성인남녀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비합리적 관계신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9(1), 453-463.
doi: 10.14400/JDC.2021.19.1.453
- 조성희, 정지숙, 김효은 (2008). 정신감정이 의뢰된 성범죄자들의 재범 여부 및 진단에 따른 하위 유형의 심리특성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26.
doi: 10.21193/kjspp.2008.22.4.002
- 조현빈 (2006).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심리의 이해. *한국범죄심리연구*, 2(2), 39-59.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3). 201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현황.
<http://www.sisters.or.kr/index.php/subpage/pds/1>에서 2014. 10. 27. 자료 얻음.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정민, 조민수, 홍세은, 박선웅 (2016). 나르시시즘과 의복 이미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2), 27-41.
doi: 10.21193/kjspp.2016.30.2.002
- 홍연주, 이주영 (2019). 성적 자기애가 20대 남녀의 성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4), 485-504.
- 홍정연 (2018). 신입경찰의 심리사회적 성숙도, 성태도, 성희롱·성폭력 인식과의 관계. *한국범죄심리연구*, 14(1), 147-162. doi: <http://dx.doi.org/10.25277/KCPR.2018.14.1.147>
- Ackerman, R. A., Witt, E. A.,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Robins, R. W., & Kashy, D. A. (2011). What does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really measure? *Assessment*, 18(1), 67-87. doi: 10.1177/1073191110382845
- Ackerman, R. A., Donnellan, M. B., Roberts, B. W., & Fraley, R. C. (2016). The effect of response format on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Consequences for item meaning and factor structure. *Assessment*, 23(2), 203-220.
doi: 10.1177/1073191114568113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Basile, K. C., Espelage, D. L., Rivers, I., McMahon, P. M., & Simon, T. R. (2009).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links between bullying behavior and male sexual violence perpetratio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4(5), 336-347.
- Basile, K., Smith, S., Breiding, M., Black, M., & Mahendra, R. (2014). *Sexual violence surveillance: Uniform definitions and recommended data elements*.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Baumeister, R. F., Catanese, K. R., & Wallace, H. M. (2002). Conquest by force: A narcissistic reactance theory of rape and sexual coerc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6(1), 92-135. doi: 10.1037/1089-2680.6.1.92
- Bieneck, S., & Krahé, B. (2011). Blaming the victim and exonerating the perpetrator in cases of rape and robbery: Is there a double standar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9), 1785-1797. doi: 10.1177/0886260510372945
- Black, M. C., Basile, K. C., Breiding, M. J., Smith, S. G., Walters, M. L., Merrick, M. T., Chen Jieru, & Stevens, M. R. (2016).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Buffardi, L. E., & Campbell, W. K. (2008). Narcissism and social networking web si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10), 1303-1314. doi: 10.1177/0146167208320061
-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230. doi: 10.1037/0022-3514.38.2.217
- Bushman, B. J., Bonacci, A. M., van Dijk, M., & Baumeister, R. F. (2003). Narcissism, sexual refusal, and aggression: Testing a narcissistic reactance model of sexual coerc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5), 1027-1040. doi: 10.1037/0022-3514.84.5.1027
- Dixon, L., Treharne, G. J., Celi, E. M., Hines, D. A., Lysova, A. V., & Douglas, E. M. (2022). Examining men's experiences of abuse from a female intimate partner in four English-speaking countri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7(3-4), 1311-1337. doi: 10.1177/088626052092234
- Erdem, A., & Sahin, R. (2017). Undergraduates' Attitudes toward Dating Violence: Its Relationship with Sexism and Narcissism.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6), 91-105. doi: 10.5430/ijhe.v6n6p91
- Feild, H. S. (1978). Attitudes toward rape: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e, rapists, crisis counselors, and citize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2), 156-179. doi: 10.1037/0022-3514.36.2.156
- Gentile, B., Miller, J. D., Hoffman, B. J., Reidy, D. E., Zeichner, A., & Campbell, W. K. (2013). A test of two brief measures of grandiose narcissism: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13 and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16. *Psychological Assessment*, 25(4), 1120-1136. doi: 10.1037/a0033192

- Hamby, S., & Jackson, A. (2010). Size does matter: The effects of gender on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Sex Roles, 63*, 324-331.
doi: 10.1007/s11199-010-9816-0
- Hepper, E. G., Hart, C. M., & Sedikides, C. (2014). Moving narcissus: Can narcissists be empathic?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0*, 1079-1091.
doi: 10.0146167214535812
- Hinck, S. S., & Thomas, R. W. (1999). Rape myth acceptance in college students: How far have we come? *Sex Roles, 40*, 815-832.
doi: 10.1023/A:1018816920168
- Kahn A. S., Rodgers K. A., Martin C., Malick K., Claytor J., Gandolfo M., Rebecca Seay, Jacklyn R. McMillan, & Webne, E. (2011). Gender versus gender role in attributions of blame for a sexual assaul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1*(2), 239-251.
doi: 10.1111/j.1559-1816.2010.00711.x
- Kanin, E. J. (1967). An examination of sexual aggression as a response to sexual frustr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9*(3), 428-433.
- Kanin, E. J. (1969). Selected dyadic aspects of male sex aggression. *Journal of Sex Research, 5*(1), 12-28.
- Koss, M. P., Gidycz, C. A., & Wisniewski, N. (1987). The scope of rape: Incidence and prevalence of sexu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a national sample of higher education stud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2), 162-170.
- Newcombe, P. A., Van Den Eynde, J., Hafner, D., & Jolly, L. (2008). Attributions of responsibility for rape: Differences across familiarity of situation, gender, and acceptance of rape myth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8*(7), 1736-1754.
doi: 10.1111/j.1559-1816.2008.00367.x
- Park, S. W., & Colvin, C. R. (2015). Narcissism and other-derogation in the absence of ego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83*, 334-345.
doi: 10.1111/jopy.12107
- Park, S. W., Ferrero, J., Colvin, C. R., & Carney, D. R. (2013). Narcissism and negotiation: Economic gain and interpersonal los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5*, 569-574.
doi: 10.1080/01973533.2013.840633
- Pinciotti, C. M., & Orcutt, H. K. (2021). Understanding gender differences in rape victim blaming: The power of social influence and just world belief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1-2), 255-275.
doi: 10.1177/0886260517725736
- Piquero, A. R., Brame, R., Mazerolle, P., & Haapanen, R. (2002). Crime in emerging adulthood. *Criminology, 40*(1), 137-170.
- Raskin, R. N.,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90-902.
doi: 10.1037//0022-3514.54.5.890
- Rennison, C. M., & Addington, L. A. (2014). Violence against college women: A review to identify limitations in defining the problem and inform future research. *Trauma, Violence, & Abuse, 15*(3), 159-169.
- Rollero, C., & Tartaglia, S. (2019). The effect of

- sexism and rape myths on victim blame. *Sexuality and Culture*, 23(1), 209-219.
doi: 10.1007/s12119-018-9549-8
- Smith, S., Zhang, X., Basile, K. C., Merrick, M. T., Wang, J., Kresnow, M., & Chen, J. (2018). *The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Tanchotsrinon, P., Maneesri, K., & Campbell, W. K. (2007). Narcissism and romantic attraction: Evidence from a collectivistic cultur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3), 723-730.
doi: 10.1016/j.jrp.2006.08.004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2*.
<https://hdr.undp.org/content/human-development-report-2021-22>에서 2023. 3. 15. 자료 얻음.
- Van der Bruggen, M., & Grubb, A. (2014).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lating to rape victim blaming: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observer and victim characteristics on attribution of blame in rape cas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9(5), 523-531.
doi: 10.1016/j.avb.2014.07.008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Sage Publications, Inc.
- Wood, L., Baumler, E., Rinehart, J. K., & Temple, J. R. (2023). Risk for dating violence and sexual assault over time: The role of college and prior experiences with violence.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71(3), 973-979.
doi: 10.1080/07448481.2021.1910273
- Widman, L., & McNulty, J. K. (2010). Sexual narcissism and the perpetration of sexual aggressio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9, 926-939. doi: 10.1007/s10508-008-9461-7

1차원고접수 : 2023. 04. 12.

심사통과접수 : 2023. 06. 15.

최종원고접수 : 2023. 06. 30.

The Effect of Narcissism and Gender on Perceptions of Sexual Violence

Kidong Bae¹⁾ Yujin Huh¹⁾ Joonbae Lee^{1),2)} Soo Yeon Park¹⁾ Sun W. Park¹⁾

¹⁾Korea University

²⁾Catholic Kwandong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narcissism and gender on perceptions of sexual violence. Participants consisted of 133 undergraduate students who read one of two scenarios in which sexual violence did or did not occur in a dating situation and answered five questions related to perceptions of sexual violence: sincerity of woman's refusal, woman's unpleasantness, woman's sexual satisfaction, violence of man's behavior, and masculinity of man's behavior.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two-way interactions between participant gender and sexual violence (present vs. absent) and between narcissism and sexual violence in most cases. Specifically, men and individuals high in narcissism were more tolerant of sexual violence compared to women and those low in narcissism, respectivel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in that it replicated the effect of gender on perceptions of sexual violence using the everyday context of dating sexual assault. More importantly,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narcissism is related to tolerant perceptions of sexual assault.

Keywords : gender difference, narcissism, sexual violence perceptions, dating rape